프란치스코 레오 대주교 강론
토론토 대주교
관리인직 주일-2025년 9월21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연중 제25주일을 맞아 우리는 토론토 대교구 전역에서 관리직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관리직은 단순히 시간과 재능, 물질을 나눠 주는 것을 넘어, 심오히 영적이고, 깊이 성경적이며, 일상생활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 희년을 맞아 관리직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새롭게 하고, 회복하며, 쇄신하라는 부르심은 모든 것이 하느님께 속한다는 것과 우리는 보호자이자 관리인이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희년은 정의와 해방을 요구하고, 관리직은 책임과 경외를 권고합니다. 이 둘은 함께 우리로 하여금 관대함과 균형, 그리고 하느님과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도록 부추깁니다.

관리직은 모든 피조물은 하느님께 속하고 (신명 10,14; 시편 24,1 참조), 하느님께서 이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가톨릭교회 교리서」299항 참조) 인정하는데서 시작됩니다. 성부의 사랑의 선물은 그분과 관계를 맺도록, 그리고 그분께 기쁘게 응답할 수 있도록 초대하며, 이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마태 20,28; 마르 10,45; 요한 13,1-17 참조) 성자의 모범으로 드러납니다.

하느님의 축복을 책임 있게 맡은 관리인으로서, 우리는 하느님의 선물을 경외와 감사, 겸손과 사랑으로 기념하고 관리하는 사랑의 돌보는 이들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형제자매들을 섬기기 위해 쓰일 이 세상의 덧없는 것도 우리에게 맡겨질 수 없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천상의 영원한 축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지겠습니까? 이번 주일 복음에서 언급된 “참된 재물” (루카 16,11)은 영원한 생명을 포함한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들의 영적 보화로 이해됩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우리의 공로와 대사로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생각은 잘못 된것이며, 교회가 배척해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한 우리의 충실함은 하느님 나라을 향한 우리의 준비성을 드러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1996-1997, 2027, 2008, 1815항 참조).

예수님의 비유는 세상 것을 하느님과 다른 이들을 위해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과, 궁극적으로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을 강조합니다 (마태 6,19-21 참조).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영원한 거처"는 (루카 16,9),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관리인의 절박함이 주목할만 한데 (루카 16,6), 우리는 미루지 말고 오늘 행해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인이 자신의 장래를

보장하기 위해 부자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즉, 사람들이 덧없는 세상에서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세속적 수단을 쓴다면, 하물며 우리는 영원히 지속되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얼마나 더욱 그러해야 할까요 (루카 16,9). 우리는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본래 하느님의 것인 세상의 것들을 봉헌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불의한 관리자가 아닌 충실한 종으로서 말입니다. (루카 16,12; 성 아우구스티노, 설교. 359A,10 참조).

비록 가장 작은 믿음의 행위도 영원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느님의 선물과 은총을 인식하며 그분의 현존 안에서 살 때, 우리의 삶과 활동은 목적과 의미, 희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장 피에르 드 코사드 신부나 로렌스 수사와 같은 영적 스승들은 이것을 **현 순간의 성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일치하여 자신을 봉헌하는 하느님의 종이요, 하느님의 자녀라는 자각을 가질 때, 우리의 모든 결정과 행동은 거룩한 것이 됩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과 은총은 많고 놀라운 것이지만, 그것들은 지극히 거룩한 성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느님의 생명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체는 우리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바치신 당신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으로 이뤄진 예수님 자신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으라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요한 13,34-35 참조). 참된 관리직은 우리가 받은 선물과 축복을 인식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사랑의 봉사로서 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성부께 바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마태 16,24-26; 마르 8,34-36), 아무 대가를 따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립니다.

희년을 지내며, 우리는 희년은 영적 쇄신의 거룩한 시간이라는 성경적 의미를 되새기게 됩니다. 히브리 성경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의 존재와 삶은 궁극적으로 하느님께 속한다고 상기시킵니다 (레위 25,23 참조). 이것은 움켜쥔 손이 아닌 열려 있는 마음과 손으로 기꺼이 주고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하느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급진적인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의 관리직은 이러한 태도과 헌신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의 관리인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952항 참조).

분열과 소비, 두려움이 만연한 세상에서, 참된 관리직은 희망의 행위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보다 더 크신 분을 신뢰한다는 가시적 표징입니다. 희망으로 사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 2항 참조). 그들은 믿음과 사랑안에서 영원한 관점을 지닙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성체 안에서 가장 위대한 표현과 완성으로 이뤄지는데, 이 성체는 하느님 나라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하느님의 신적 생명을 성사적으로 미리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1402-1405; 1003항 참조). 이 거룩한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형제자매를 위해 봉사하는 우리의 삶으로 응답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우리 자신의 봉헌은

하느님의 사랑을 비추며, 그렇게 함으로써 참된 관리인직을 드러냅니다.

이제 제 강론을 십자가의 성 요한의 영감어린 말씀으로 (「빛과 사랑의 잠언」27항) 마치고자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하느님께 속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께 속했기에,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도 내 것이요, 땅도 내 것이다. 나라들도 내 것이며, 의인들도 내 것이고, 죄인들도 내 것입니다. 천사들도 내 것이고, 성모님도 내 것이며,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느님 자신도 내 것이고 나를 위하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가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내 영혼아,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찾느냐?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며, 모든 것이 너를 위한 것이다. 덜한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성부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주목하지 말라. 나아가서, 너의 영광 안에서 기뻐하라! 그 안에 숨고 기뻐하면, 너의 마음의 간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공동체를 충만한 은총으로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